

[특별기고]

국제스케이트장, 한국 빙상의 뿌리인 춘천이 최적지다.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서 그 대체지를 둘러싼 지자체 간 경쟁이 뜨겁다. 수도권 인근 도시들이 앞다투어 손을 들었고, 도내에서도 원주와 철원까지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러나 국제 스케이트장은 단순한 경기 시설이 아니다. 명분과 실리, 그리고 역사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춘천은 이미 준비된 도시다. 송암동에 시유지를 확보해 별도의 매입 절차 없이 곧바로 착공이 가능하다. 하루라도 빨리 선수와 학부모, 빙상계를 위한 새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춘천은 대체지로 최적지이다.

접근성 또한 뛰어나다. 서울~춘천 고속도로, 경춘선, 앞으로 이어질 GTX-B 노선을 통해 수도권과 한 시간 이내로 연결된다. 수도권 선수들의 이동 편의를 보장하면서도 강원권이라는 새로운 성장 축을 열어갈 수 있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은 다른 도시가 쉽게 갖추기 어려운 강점이다.

무엇보다 춘천은 ‘함께하는 힘’을 갖추고 있다. 범시민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과 관이 한마음으로 나서고 있다. 특정인의 성과가 아닌 지역 공동체 전체가 함께 준비하는 유치라는 점에서 운영과 발전의 지속 가능성 또한 높다.

춘천은 한국 빙상의 뿌리이자 자부심이다. 1929년 소양강 스케이

트 대회로 시작된 빙상 전통은 시민들의 생활과 문화 속에 깊이 자리 잡았다. 전국 대회의 무대였던 공지천과 소양강은 한국 빙상의 산실이었고, 이익환을 비롯해 박남환, 김승모, 황봉근, 전선옥, 권복희, 이남숙, 김선애, 유선희 등 숱한 스타들이 춘천의 천연링크에서 배출됐다.

1971년 태릉에 스케이트장이 건립되기 전까지 춘천은 명실상부한 빙상의 성지였다. 이제 반세기 만에 태릉 시대가 막을 내린다. 당연히 한국 빙상의 요람은 본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환지본처(還地本處), 모든 것은 제자리에 있을 때 가장 빛난다.

태릉의 빈자리를 메우는 일은 단순한 시설 이전이 아니다. 선수들의 꿈을 이어주고, 지역과 국가의 균형 발전을 이루는 소중한 선택이어야 한다. 빠른 속도, 합리적 비용, 역사적 상징성, 시민의 열정을 두루 갖춘 도시-탁월한 해답은 춘천이다.

@ 춘천미래동행재단 노후동행사업단 (2025. 9. 4.)